

## 孫基禎 選手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制覇가 우리민족에게 주는 歴史的 意義

鄭 燦 謨 (단국대학교)

### I. 序 論



그림 1. 올림픽 우승 장면

孫基禎은 1912년 5월 29일 평안북도 신의주부 남

민포동에서 태어나 若竹普通小學校를 다녔으며 李一成 선생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운동선수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에 소질을 보여 소학교 6학년 때에 安義戰(安東과 新義州市간의 육상대항 경기)에 출전하여 어른과 겨루어 5천M에서 우승하였고, 소학교 졸업 후에는 동익상회(꼭물수집상) 점원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히 달리기 연습을 계속 하였다.

1931년 11월 조선신궁대회에 평북대표로 출전하여 5천M달리기에 2위를 하였고, 32년 3월 동아일보 주최 京永마라톤에서 2위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養正高普에 입학 하였다.

양정고보에 입학한 후 본격적인 장거리 지도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참가하여 8월 9일에 개최된 마라톤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 2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였다.

우승한 다음 해인 37년에 양정고보를 졸업했으며, 40년에 明治大學 法科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체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1936)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그의 개인적인

성취가 당시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우리 한민족에게 주었던 민족사적인 의의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그 정신을 계승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 II. 歷史 바로 세우기

우리는 항상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런 민족”이라고 일컫는데 일론 그 증거를 대라면 머뭇거리기가 일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거침없이 “손기정과 그의 마라톤을 보라 거기에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고 대답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구나”고 묻는다면 손기정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보다는 전직 대통령을 범정에 세운 현직 대통령이나 “역사 바로세우기”를 부르짖는 정치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연구자의 견해로는 지금부터는 손기정이란 이름을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유로는 올림픽 출전선수 선발전에서부터 조선과 일본의 역사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손기정 선수가 일본을 이겼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일본육상경기연맹에서는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할 3명의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했는데 남승룡과 손기정이 1, 2위 그리고 일본의 스즈키(鈴木房重)가 3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두명 내보내기 위해 4위를 한 시오아키(鹽飽玉男)를 베를린에까지 데리고 가 거기서 한국 선수 1명을 탈락 시키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는 현지에서 사토(佐藤秀三郎)코치가 “반도인 중 한명을 빼고 일본인을 두명 내보내라는게 상부의 지시다”라고 말하면서 남승룡 선수를 불러 “자네와 손선수중 한명은 빠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남선수가 이를 완강이 거부하자 손선수에게 “손선수는 나이가 어리니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며 마라톤 출전을 포기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남선수가 외국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강경하게 버티

자 현지에서 30키로미터 단축마라톤을 통해 선발토록 하였다.

물론 두선수는 재 선발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지만 올림픽 사상 유래 없는 현지선발전이 올림픽선수촌에서 열리게 되었다. 경기도중 시오아키가 코스를 벗어나 지름길로 달렸지만 두선수는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1위와 2위를 하여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그 결과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선수는 1위, 남승룡 선수는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만약 이들 두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면 현지에서 망명하겠다.” 민족적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일제의 강압에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와 그 역사가 있음이 전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이유로는 평소에 느꼈던 나라 없는 슬픔과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우리나라의 역사있음을 세계에 알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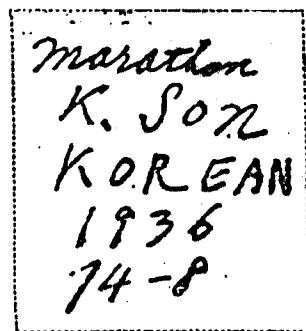


그림 2. 마라톤 우승 후의 싸인

손기정이 한문으로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동양 이름에 무신경한 외국인들이 혹시 일본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 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사실의 역사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하는 사상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베를린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꼭 1 등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손기정은 한국인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실제로 올림픽 우승 후 싸인한 글씨를 보면 「Marathon K. SON, Korean 1936 14-8」이라고 적었고, 각 종목 우승자들의 싸인복에는 「K. C. Son 손기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대표적 인물 金九는 1946년 8월 20일 덕수궁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마라톤 제패 10주년 기념식에서 자신의 사진 하단에 한시 한수를 친필로 적어주면서 손기정 때문에 3번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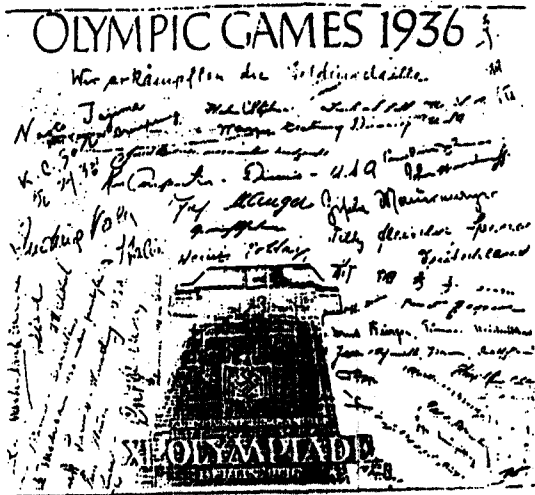


그림 3. 올림픽 우승자 싸인복

남경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1936년에 손기정이란 조선청년이 세계마라톤을 제패하고 도 가슴에 일장기를 단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파 울었고, 태평양 전쟁 때 중경에서 조선청년 손기정이 지원해 필리핀 군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통해서 울었고, 또 오늘은 죽었다던 손기정을 광복된 조국 땅에서 다시 만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으니 감격해서 울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구의 이말은 첫번째는 손기정이 우리 민족의 우월한 역사를 세계만방에 떨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두번째는 우리나라 청년의 대표인 손기정

의 정신이 학병에 지원해서 죽을 만큼 써어서 설움의 눈물을 흘렸고, 세 번째는 광복 후 죽었다던 손기정도 살아 있고 나라와 역사도 다시 찾아 반가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석된다.

세번째 이유로는 올림픽 우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를린에 있는 1936년 올림픽 수상자 명단이 적혀 있는 석조비에 「잃어버린 국적」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되찾을 수 없는 국적」임을 알던 암흑의 시절부터 시작하여 조국이 광복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 그는 그의 국적! 아니 우리의 국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가 하나 둘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는 항상 자기의 국적을 「Korea」 또는 「조선」으로 표기하였으며, 자기를 「KITEI SON」이 아닌 「손기정」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손기정이 「개인인 나」가 아니라 「우리」 즉 「한국의 국적을 가진 손기정」이라는 말이며, 그의 혈관에 우리라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197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朴永祿이 베를린에 가서 1936년도 올림픽 수상자 명단에 적혀있는 손기정의 국적 「Japan」을 「Korea」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8월 17일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적 변경사유에 대해 “우리 민족의 영광을 타 민족에게 귀속시킬 수 없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한바 있다.

물론 이 국적 회복은 서독올림픽위원회에 의해 「Japan」으로 되돌아 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손기정의 국적이 Korea임이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측이 국적을 수정하는 서한을 IOC에 내면 IOC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독올림픽위원회에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타진되었다.

이 사건 이후 1984년 LA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 폐회식 행사에 8명의 올림픽 관련 인사를 초청하였는데 그 중 2명은 남승룡과 손기정이었다. 그 자리에서 LA올림픽위원회는 전 세계가 지켜보

는 가운데 이들 두 사람의 국적을 Korea라고 뚜렷이 알려 주었다. 실로 48만에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되찾은 것이다.

그 뒤 서독올림픽위원회에서도 1896년 8월에 베를린올림픽 50주년 기념행사에 손기정을 초대한 바 있으며, 8월 15일에는 그에게 베를린올림픽스타디움에서 국제육상경기대회 입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영광을 부여 하였다.

시상에 앞서 주최측에서는 손기정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한국인 손기정」이라고 소개하여 손기정의 국적을 5만 관중의 박수 속에 50년만에 정정하였다.

또한 그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부상으로 받게 되어있던 그리스투구를 8월 17일 서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반환하였다. 이 투구는 1875년 제우스신전에서 발굴된 2,600여년 전의 것으로 그리스의 브라디니신문사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수여한 부상이었으나 IOC에서 올림픽 규정상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메달 이외에는 어떤 선물도 공식적으로 수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현장에서 수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후 투구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는데 재독 교포 盧秀雄씨가 1년여의 노력 끝에 1977년에 샤로텐부르크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동아일보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리스올림픽위원회 그리고 브라디니신문사의 도움으로 10여년만에 투구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8월 9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켈버시에 있는 역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기록탑의 「KITEI SON JAPAN」이라는 이름을 「KEE CHUNG SON KOREA」로 고치는 명칭 정정식을 갖고 이 날을 「손기정의 날」로 선포하였다.

폴 네젤 시장은 기념사에서 “LA올림픽 마라톤러들이 길을 누빈 이곳에서 잘못된 역사의 한 부분을 바로 잡고 한미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라는 말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한국 교민들의 요구로 7월에 시의회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손기정은 “50년 전 영광은 이 몸을 달려 얻은 것이지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영광은 대한민국과 모든 우리 겨레의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곧 손기정의 운동정신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찾기 운동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公明黨의 구사카와 소조(草川昭三)의원은 이미 “서독올림픽위원회에서도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환원했다.”고 지적하고 “일본올림픽위원회에서는 IOC에 건의해 손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발간된 일본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OCEAN」 제 10과에는 「A Korea Marathon Runner」라는 이름으로 손기정선수를 소개하고 그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달리는 사진과 서울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달고 성화를 봉송하는 사진 등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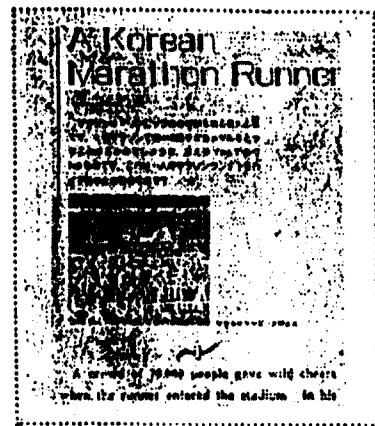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고교 영어교과서

이러한 사실들은 손기정이 자신과 나라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 둘 찾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III. 日章旗 抹消事件과 民族精神

손기정은 1936년 11월 3일 明治神宮大會 마라톤에서 2시간 26분 42초의 세계신기록을 세웠고, 대회 본부는 관례에 따라 일본 국기를 연주했다. 시상식 후 손기정은 선수대기실로 가서 金淵昌선생님의 허리를 껴안고 “왜 우리에게 나라가 없습니까. 나의 승리에 왜 일본 국가가 연주되어야 하나요?” 라고 호느꼈다. 김선생도 함께 눈물을 흘리자 일본 기자들이 물러들어 우는 까닭을 물었다. 김선생님은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오늘 승리로 베를린올림픽 출전이 확실해져 기뻐서 운다고 말하였다.

이튿날 신문에는 「손기정, 감격의 눈물」이란 제목 아래 세계신기록 수립을 크게 보도하였지만 손기정의 눈물은 太極旗가 아닌 일장기, 愛國歌가 아닌 日本國歌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다.



그림 5. 올림픽 전 손기정의 복장

1983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애독자가 소중히 간직하다 동아일보 63돌을 맞아 기증한 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손기정이 베를린올림픽을 뒤흔던 앞두고 일본선수 두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사진을 보면 두 일본인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반해 손기정 선수는 아무런 무늬도 없는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다.

손기정은 그 이유를 “훈련 때에 일장기가 달린

유니폼과 트레이닝 복을 놓고 고심을 했다. 이를 입자니 민족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고 안입자니 일본인 코치의 눈초리가 거북스러웠다. 그래서 궁리 끝에 家寶로 간직해야 할 일장기 운동복을 어찌 함부로 입을 수 있겠느냐고 핑계를 대 끝내 입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장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땀 수 밖에 없었다” 고 털어 놓았다.



그림 6. 시상식 정면 사진

일제 36년 동안을 길고 어두운 암흑기로 표현한다면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가 달린 운동복을 피해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진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진과 더불어 불꽃처럼 타오르는 항일 민족

정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라톤 우승 후에 개척된 시상식 사진을 보면 월계관을 쓴 손기정이 월계수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린채 시종 고개를 숙여 일본기가 게양되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일본 신문은 「너무 감격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손기정은 그 당시의 소감을 「나라 없는 설움으로 가슴이 메어질 듯 해서 가슴 오른쪽 아래의 일장기를 뜯어내고 “나는 조선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회고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以心傳心 이었던지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는 <名譽의 우리 孫君 世界制覇의 凱歌>란 제목과 함께 孫基驥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는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활약하던 李吉用이 李象範화백에게 부탁하여 손기정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지웠으나 흔적이 남아 銅版에 현출된 사진 중 일장기 부분을 청산가리 용액으로 말소한 뒤 인쇄했기 때문이다.

「新東亞」 9월호에 실린 사진도 마찬가지로 일장기가 없었으며, 자매지인 「新家庭」에는 손기정의 다리 사진만이 실려졌다.

“손기정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다”라는 無言의 항의가 조선 청년 손기정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말소시켰으며, 일장기를 기피하기 위해 다리 사진만을 실었던 것이다.

이들은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擧事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주동한 李吉用, 李象範, 玄鐵建, 崔丞萬, 申藥均, 白雲善, 徐永浩, 林炳哲 등은 일본 경찰국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고 40여일만에 풀려났으며, 이 사건 발생으로 주필 김준연, 편집국장 설의식이 즉시 해임되었고 곧이어 송진우 사장과 이여성 조사부장, 박찬희 지방부장 등이 해임되는 등 임원 9명과 사원 4명이 신문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길용은 1932년 제 10회 LA올림픽 마라톤에서 6위를 한 김은배와 권태하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도 말소한 바 있는 애국 기자였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을 당하고 「新東亞」와 「新家庭」은 폐간되고 말았다.



그림 7. 일장기가 말소된 측면 사진

손기정이 베를린올림픽을 제패하던 1936년 8월 9일에는 천지가 진동할만큼 우승 축하로 전국이 떠들석하였고, 8월 11일에는 일본육상경기연맹에서도 공식적인 자축연을 마련할 만큼 경축 분위기였으나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일제는 우리의 민족정기가 발흥되는 것이 두려워 동경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후 여의도 공항으로 손기정을 보냈고, 여의도 도착 후부터 환영은 커녕 고등계 형사들로 하여금 “졸업장을 줄테니 학교도 나가지 말고 전차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타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손기정은 자전거를 타고 굳건히 학교를 다녔다.

그해 12월 조선일보 강당에서 베풀어진 귀국보고 겸 환영식에서도 일본어로 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일보 주필 徐春이 알기 쉽게 풀이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말로 설명하였다.

#### IV. 우리 民族의 憂越性 입증

아시아 30억 인구 중 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톤 우승자는 손기정과 황영조 단 2명 뿐이며 두사람 모두 한국인이다. 그 중 한 사람은 민족의 암흑시

대에 뛰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계화 시대에 뛰었으나 두사람 모두 인간의 한계점에 도전하여 끈질긴 인내와 정신력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손기정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 아래서 먹고 입고 숨만 쉬던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그런 역경 속에서 조국의 명예를 걸머쥐고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손기정이 참가했던 베를린올림픽은 히틀러(Hitler)가 독일 민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스포츠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리안 족이 인종 피라미트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기의 인종이론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광분한 대회다.

“모든 민족 위에 아리안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UberAlles」를 표어로 내걸고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1만을 수용하는 메인스타디움과 4개의 경기장을 건설하고 성화봉송에 7개국 300명의 走者를 동원하였으며, 야외집회장 앞에 히틀러탑을 세우는 등 국력을 과시 하였다.

그 뿐만아니라 시내와 경기장을 스와스티커(나치스기장)의 물결로 뒤덮고 입장식 때는 나치식 경례로, 경기에서는 메달(금 38, 은 31, 동 32로 우수, 미국 금 24)로 신체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극치를 이룬 대회였다.

그러한 대회에서 의로운 朝鮮人에 불과했던 손기정과 남승룡이 1위와 3위로 끝인하여 다른 민족을 누르고 베를린 하늘을 박수로 진동시켰으니 이것이 곧 우리민족의 우월성이 입증된 것이다.

이튿날 히틀러는 손기정을 메인스타디움 웅접실로 불러 “위대한 청년”이라는 칭찬과 더불어 축하인사를 하고 “조국에 돌아가 체육을 위해 힘쓰라”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으니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부한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우리 민족인 손기정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베를린올림픽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마라톤의 예를 들면 1932년 LA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은배가 6위, 권태하가 9위를 한 바 있으며 그후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서윤복이 1위, 50년 보스턴마라톤에서는 함기용이 1위, 송길윤이 2위, 최윤철이 3위를 휘쓸어 미국 내에 코리아의 선풍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서는 최윤철이 그리고 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는 이창훈이 각각 4위를 해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 줬고, 그 결과가 92년 황영조의 바르셀로나올림픽 우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스포츠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1936년 손기정의 우승부터 1976년 梁正模의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자유형 페더급)우승까지 40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나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꿈나무발굴 및 우수선수 육성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자 10여년 만인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는 12개의 금메달로 세계 4위의 스포츠 선진국 대열로 도약했으며,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도 상위권을 유지 하였다. 또한 96에틀란타올림픽에서의 메달 수를 보면 우리 민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다른 나라 못지 않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다만 선수관리와 정신력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을 뿐이지 ………

그러나 연구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큰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와 체육단체가 많고 선수들은 경기에서의 메달 색깔을 자신이 흘리는 땀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V. 結論 및 提言

손기정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제패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손기정은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공헌하였고, 일장기 말소사건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양하

고 단결심을 고취시켰으며, 마라톤 경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전세계에 입증시켜 주었다.

역사 바로세우기의 공헌 내용을 살펴보면 베를린 올림픽 출전선수 선발전에서 일본육상경기연맹입원의 우리나라 선수 탈락음모를 이겨내고 우승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그 역사가 있음을 전세계에 알렸고, 선수생활을 하는 도중이나 경기 전후에도 일장기가 달린 운동복 입기를 기피하였으며, 우승자 싸인북이나 우승후의 싸인지에도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쓰거나, Korea이라고 기록하여 그가 한국인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올림픽 우승 후에도 베를린에 있는 수상자 명단에 「잃어버린 국적」 Korea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서독과 미국올림픽위원회로부터 손기정의 국적이 Korea임을 공식으로 인정 받았으며, 일본에서도 「IOC에 건의해 손기정의 국적을 한국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일본 고등학교의 영어교과서에는 손기정을 「A Korea Marathon Runner」라고 표현할 정도로 손기정은 자신과 나라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공헌하였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손기정선수가 일본인이 아니므로 그의 가슴에는 일장기를 말소시켜야 한다는 민족정기의 발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민족의 단결심 고취와 민족정신 고양이 이루어졌다.

손기정 선수는 우리민족이 일제의 탄압 아래서 먹고 입고 숨만 쉴수 밖에 없던 역경속에서도 조국의 명예를 걸머주고 세계신기록으로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우승을 하였다.

특히 그의 마라톤 우승은 독일 민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입증시키기 위해 광분하던 히틀러로부터 “위대한 청년”이라는 칭찬과 축하인사를 받아내므로 우리민족의 우월성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손기정의 노력 이상으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의 기념비에 있는 손기정의 이름과 국적을 우리의

것으로 회복시켜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이 UN안보이사국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나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우리 민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일은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다음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일장기말소 등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그 때에 비하면 너무도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만 유지하면 씨앗은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관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정신력이고 민족정기라고 생각된다. 우리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이방면의 이해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민족은 머리카락 모두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우수성은 올림픽 및 각종 경기대회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우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국제경기대회에서의 경기력이다.

경기력 향상의 첫번째 문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라고 본다. 어느 한쪽으로 가버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요즘 많은 체육인들은 정책면에서 생활체육에 비해 엘리트체육의 비중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조화로운 제도적인 뒷받침이 철저히 요구된다.

제도 다음으로 거론되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사 람의 문제다. 현재 우수선수의 대부분은 체육부 창설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꿈나무 발굴과 우수선수 육성에 힘 입은 바가 크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통폐합으로 체육부가 없어진 이후부터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소홀해졌다는 것이 체육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체육 장려는 국위선양의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국위를 선양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구분이 없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사람들  
이나 나라가 없을 때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  
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체육인 또는 체육인 출신  
정치인이나 체육을 증시한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나라 사랑의 측면에서도 체육을 증시하고 체육이  
나 국위선양을 위해서도 꿈나무 발굴이나 우수선수  
육성 등 사람 기르기에 정부나, 체육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대한체육회, 「대한 체육회 70년사」, 대한 체육회,  
1990  
손기정, 「나의조국 나의 마라톤」, 한국일보사 출  
판국, 1983  
체육부, 「체육한국인」, 체육부, 1986  
한국체육기자연맹, 「일장기 말소의거 기자 李吉用  
」 인물연구소, 1993.

「신동아」, 1936년 9월호  
「여성동아」, 1936년 8월호  
「여성」, 1936년 12월호  
「조광」, 1936년 9월호  
경향신문, 1986.  
동아일보, 1936, 1972, 1976, 1977, 1979, 1982, 1984,  
1986, 1987, 1990, 1991, 1996.  
신한민보, 1936, 8.  
매일신보, 1936, 8.  
스포츠서울, 1988, 1996.  
일간스포츠, 1986, 1988, 1989, 1996.  
조선일보, 1936, 1976, 1982, 1986, 1988, 1991, 1992,  
1996.  
조선중앙일보, 1936, 8.  
중앙일보, 1986, 1988, 1989, 1992, 1994, 1996.  
한겨레신문, 1988, 1989, 1992, 1996.  
한국일보, 1976, 1986, 1987, 1988, 1996.  
大阪朝日, 1936. 8, 1992. 8.

### ABSTRACT

## The Historical Meaning of Son Kee-Chung Marathon winner at Berlin Olympic Games made a contribution to the recognition of Reality of Korean

CHUNG Chan-Mo

After the review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Son Kee-Chung, marathon winner at the Summer Olympic Games of Berlin, Researcher learned that marathon runner Son Kee-Chung made a contribution to the recognition of reality of Korean history and with this kind of learn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marathon winner Mr. Son rejected the Japanese national flag at the Berlin stadium and it was very sensational to the audience, who learned the Korean spirit and also it became the unique impact of Korean People's solidarity. The world recognized the Korean People's excellency not like the understanding, so far, the inferior race to Japanese.

Mr. Son overcame the dirty conspiracy from the Japanese Championship of Track and Field to discard him through the first try-out and the final try-out and at last he became the winner, the first place and he rejected to wear the running shirts printed the National Flag of Japan.

At that time most of the Korean People were very poor and hungry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In spite of this kind of difficulties Mr. Son became the winner of the Olympic marathon and so, this news triggered the spread of the People's dignity. The intention of Adolf Hitler, host of the Berlin Olympic Games at that time, was to notify the physical superiority of German race to the world and so he had strong desire a German runner to be the winner at the Berlin Olympic, but the result was not. President Hitler could not help speaking in high terms of "Great Young Man" to Mr. Son.

This is belonging to the philology research and the related philology should be discovered by the researcher's hand.

With this research Researcher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name of Mr. Son Kee-Chung and his nationality on the monument inscription in Berlin should be changed into Korean name and Korean nationality from Japanese name and Japanese nationality with his descendents, us. This job is thought as much easier one than that Germany and Japan, WWII war crimes, became the permanent member of UN Security Council. For this ardent goal very aggressive try is required by Korean government or Korea Olympic Committee. It depends on the persuasive power of Korea.

The Mr. Son's generation tried their best to overcome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oday we are in the pretty much easier environment and so,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e seed: strong spirit and racial dignity to raise. The instructors should not be lazy to educate the strong spirit and racial dignity. If they keep it in their mind, they can bear it in their mind and try it, and when they can not make flowers come out, they deliver their strong will to the next generations.

Finally, physically racial superiority has been proved through many kinds of games and contests including the olympic games. Sports is one of the short-cut to let them know the Korean People's excellency all over the world. For this goal the harmony between the elite sports and life sports. This is not the question: whether one of these is more important or not. According both of them are required the balanced support by the institution.

The next requirement is manpower. Nobody can deny the today's sports as the result of the yesterday's efforts: with the new government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Sports, Korea did her efforts to find out the future sportsmen from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and support them for a long time under the leading policy of the government.

By the way that kind of efforts and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s shown to be drastically decreased to the eyes of the sports experts after the ministry was reorganized into the one pa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Nobody can not deny the reputation of the sports for the country and so, the supports and policy by the government should be kept without any discrepancy. There are many sports men who devoted themselves to save their father land in the history of East or West, today or yesterday. Some of them are pure sports men and some of them politicians who were sports men.

Finally Researcher would like to suggest that we, regardless to say your job, politician or sports man, all do our best to find out good resources, raise, and support them in the same way.